

현지 지도

정창현 /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기자

현지 지 지도란 김일성·김정일이 현장에 직접 내려가서 행하는 북한 특유의 정책 지도 방법을 말한다. 북한은 이를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대중 지도 방법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국가의 최고 통치자는 현장 시찰은 국가 정책 운영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이다. 박정희 前대통령도 연초에 이루어지는 중앙 부처 및 지방정부에 대한 초도 순시를 비롯해 수시로 각 지역을 민정 시찰하였다.

그러나 '수령의 나라'인 북한에서 현지 지도는 민정 시찰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현지 지도를 통해 북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수령의 현지 교시'와 다양한 형태의 대중 운동이 창출되는 것이다.

김일성은 1945년 구소련으로부터 귀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 9일 평양 근교의 강선제강소를 방문하였다. 이것이 해방 후 김일성의 첫 현지 지도였다. 이후 김일성은 1년에 반 이상을 현지 지도에 할애하였다.

북한은 현지 지도를 김일성·김정일에 국한된 정책 지도 활동으로 지칭하면서 이를 이상화 작업에도 적극 이용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이 행한 현지 지도 사적을 영원히 전한다는 이유로 북한 전역에 세운 현지 지도 사적비가 이상화의 구체적 사례이다.

그렇다면 '수령'의 현지 지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북한 사회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먼저 준비 단계를 보자. 일반적으로 정기적·순간적으로 실시되는 현지 지도의 경우, 노동당중앙위원회 참사실에서 호위총국과 상의해 일정을 잡는다. 우리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이 경호실과 상의해 계획을 짜는 것이다. 일단 계획이 확정되면 노동당 조직지도부내 검열지도1과 지도원들이 해당 지역, 공장·농장에 사전에 가서 전반적인 사업 검열을 한 후 김일성이 내려오면 해당 지역의 실정을 보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김일성의 즉흥적인 결정으로 호위병만을 데리고 현지 지도에 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현지 지도의 발의나 제안은 김일성·김정일이 제기하는 경우와 비서국, 정치국, 정무원,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김일성·김정일이 국가·당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스스로 제기하는 경우이다. 후자는 비서국이나 정무원회의에서 국가 운영상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김일성이나 김정일에게 이 문제를 제기해 현지 지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현지 지도는 형태에 따라 정기 지도, 순간 지도, 수시 지도로 나눌 수 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현지 지도는 1년에 1개 또는 2개道を 선정해 지도를 나가는 것이다. 정기 현지 지도는 주로 특정한 도의 운영이 난관에 봉착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다. 또한 현지 지도를 통해 모범을 창출해 전국적인 사업 방법을 창출할 때도 정기 현지 지도가 실시된다. 정기 현지 지도는 도의 전반적 사업, 당·정·군의 모든 사업을 포괄하며 도와 중심 郡이 지도 대상이다.

현지 지도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도 계획서가 작성되어 당 정치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지도 계획서는 조직지도부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지도 방향을 들어서 대

상 지역, 일정, 내용 등을 확정한다. 일정에는 주로 지도 지역, 분야, 협동농장, 공장 등의 방문 날짜와 도당이나 군당에서 가질 회의 소집 날짜까지 세세하게 작성된다. 한마디로, 김일성·김정일이 할 현지 지도의 행동 반경을 담고 있다. 이 계획서가 완성되면 최종적으로 정치국에서 토의·비준된다. 통상적으로 정기 현지 지도는 그해 당 정치국 운영 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다.

정치국에서 대상 지역과 일정이 확정되면 두 달 전에 중앙당 조직지도부 검열과에서 공업, 농업, 교육 등 각 분야의 지도원들을 중심으로 ‘지도사업요해그룹빠’(검열지도원)를 조직해서 파견한다. 이들은 해당 도에 가서 도당책임비서와 회의를 가진 후 각 분야, 각군의 책임자들과 토의, 검열 요강을 주지시킨다. 즉, 회의나 토의를 통해 “당회의를 소집해서 어떤 것을 보겠다”는 것을 통고하는 것이다. 검열지도원들은 대상 지역의 당 사업, 행정 사업 등 전과정을 검열한다. 특히, 대상 지역의 문제점을 집중 검열한다. 이 과정은 한국의 감사원이 도 전체를 집중 감사하는 것과 유사하다.

검열지도원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오기 전까지 검열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김일성이 도착하면 검열지도원전체회

의가 소집되어 구두로 대상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이 보고된다. 보고를 들은 김일성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문, 지역에 직접 가거나 검열지도원들에게 제차 알아보라고 지시를 한다. 이를 통해 집중적으로 볼 지역이나 공장·협동농장이 결정되고 도당 상무위원회 또는 전원회의 일정이 확정된다.

대체로 정기적인 현지 지도는 2 주가 기본이고 길면 3 주 정도 걸린다. 이 기간에 김일성은 결정된 분야와 지역을 돌아보고 도당 상무위원회 또는 군당 주요 간부와 기업소 지배인까지 참가하는 도당 확대 상무위원회를 열어 현지 지도를 총화한다.

정기 현지 지도와 달리 순간적인 현지 지도는 사고가 났을 때와 특정 분야·단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시된다. 이 경우에는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지시가 떨어진다. 정기 현지 지도와 달리 순간 현지 지도는 지도 계획을 세우고, 검열지도원을 파견하는 데 시간이 빠듯하다. 파견된 지도원들은 밤샘하더라도 맡겨진 부분을 검열해 김일성이 오기 전까지는 보고서 작성을 끝내야 한다. 순간 지도는 보통 3~4 일이 걸리고 길어야 1 주일 정도 걸린다.

수시로 이루어지는 현지 지도는 김일성이

나 김정일이 갑작스럽게 제기해 실시된다. 정기 또는 순간 현지 지도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예정에 없던 지역·단위를 방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수시 현지 지도는 거의 당일에 이루어진다. 정기·순간 현지 지도와 달리 사전 검열없이 직접 농촌이나 공장에 가서 잘 안돌아가는 부분이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지에서 결론을 내린다.

현지 지도가 끝나면 중앙당에서 전체 성과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총화하고, 이를 다른 도·지역으로 확산시키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

청산리협동농장처럼 한 지역을 여러번 현지 지도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특정 농장이나 공장·지역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서 모범을 창출해 이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 위해서다. 1960년 2월에 보름 동안 진행되었던 강서군에 대한 현지 지도 사례를 통해 이같은 현지 지도의 구체적 모습을 확인해볼 수 있다.

김일성이 강서군을 현지 지도하기로 결정한 것은 50년대의 농업 협동화 작업을 통해 농업협동조합이 里 단위로 통합되어 리가 하나의 생산 단위로 된 새로운 환경에서 각 리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었다. 김일성은 1959년 3월과 11월 함경북도와 평안

남도를 현지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그 해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국가·경제 기관들의 사업체제와 사업 방법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개선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여기서 강서군이 새로운 사업 방법을 창조하기 위한 시범 단위로 결정되었다.

김일성이 현지에 오기 전 두 개의 검열지도그림은 청산리 당사업과 군당위원회 사업을 요해(검열)하였다. 당시 강서군 당위원장은 현재 노동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제1부 부장으로 있는 문성술이었다.

2월 5일 새벽 청산리에 도착한 김일성은 뽕 당사무실에서 파견된 지도 성원들로부터 사업 정형을 보고 받았다. '실태 요해 자료' 들을 검토한 김일성은 리 당위원장, 관리위원장, 리 여맹위원장, 당 단체위원장, 작업반장들, 노당원 등 뽕 안의 초급 간부와 핵심 당원들과 담화를 가져 청산리협동농장의 상황을 직접 파악하였다. 이어 리 당총회 소집을 지시하고 강서편직생산협동조합과 강서도 자기공장을 방문한 후 군 당위원회 집행위원과 위원, 부부장 이상 간부들과 담화하였다.

현지 지도 과정에서 김일성은 2월 7일과 15일에 검열지도원들을 뽕 안의 초급당 단체들과 6 개 뽕에 체차 파견하였다.

2월 18일 김일성은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당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해 지도 결과를 총화하였다. 그 후 김일성은 전원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에 대한 집행 대책을 세워 주고 철수하라고 검열지도원에게 지시하였다.

평양에 온 김일성은 2월 23일 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확대회의에서 강서군당사업 지도를 총화하였다. 여기서 김일성은 이른바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내놓았다. 김일성은 '청산리 방법은 주체적인 군중 관점에 기초하고 있는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사업 방법'이라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후 김일성은 모든 군들과 뽕들을 집중 지도하여 사업체제와 지도 방법을 새 환경에 맞게 혁명적으로 고치도록 '지도 성원'을 파견하였다. 이로써 발의와 지도 계획서 작성에서 시작된 현지 지도가 최종적으로 종결된 것이다.

현지 지도에서 내려진 김일성의 결론은 '현지 교시'라는 이름으로 말단 하부 단위까지 당일로 전파된다. 일반적으로 '수령의 교시'에는 친필 교시, 회의 교시, 현지 교시가 있다. 북한은 교시를 통해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교시가 곧 법'인 사회이다. 과거 김일성시대에 현지 지도를 통해 말한 교

시가 어떻게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되는지를 보면 그 권위나 효력이 갖는 의미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현지 지도 현장에는 항상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말을 녹음하는 사람이 따라다닌다. 현지 지도를 총화하는 회의에서 김일성이 최종 결론을 내리면 그 녹음 내용이 곧바로 중앙당에 보내진다. 여의치 않을 경우 비행기로 수송한다. 녹음 테이프를 받으면 당의 紀費課에서는 군 단위로 내려보낼 수 있도록 테이프를 수백 개 복사한다. 이 테이프가 기통(긴급 통신)을 통해 각 도·군에 내려보내진다. 이를 받은 각 군에서는 교시 전달 단위(교시 침투 단위)별로 즉시 내려보내, 각 단위별로 김일성의 육성을 듣고 토의하도록 한다. 교시 전달 단위란 각 군 단위까지 청취 대상 인원을 선별해 적당한 인원으로 나누어 놓은 그룹이다. 큰 군에는 약 5 개 정도의 교시 침투 단위가 조직되어 있다. 교시가 말단까지 침투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24 시간 이내이다.

그러나 70년대 중반 김정일이 노동당내 실권을 장악하면서부터는 국가 비밀이 새어나갈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청취 대상을 제한하였다고 한다. 즉, 현지 지도의 내용이 농업이면 농업 관계자만 청취하도록 한 것이

다.

이렇게 현지 지도의 결론 내용이 말단 간부까지 전파되면, 각 지역에서는 이 결론 즉, 교시를 집행하기 위한 회의가 연이어 열리게 된다. 물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느 단위까지 회의를 가지라는 중앙당의 지시가 내려간다. 교시를 알리기 위한 집중 학습, 교시 집행을 위한 회의가 한바탕 진행되고 나면 중간총화회의가 열리고, 매년 그 지역에서는 교시총화회의가 열린다.

북한에서 지금까지도 매년 강도높게 총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1월과 2월 사이에 열리는 청산리교시집행총화이다.

이 총화는 김일성의 청산리협동농장 현지 지도 이후 매년 협동농장을 비롯 농업 분야에서 진행된다. 이 총화는 한 해 농사를 마치고 그 해 농사 작업을 견열하는 자리이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청산리총화가 끝나야 한 해 농사가 끝난다”고 말한다. 리 단위로 열리는 당총회에서는 노력일 평가, 자재 보장 사업, 농기구 보장, 토지 관리 사업, 사상·조직 사업, 기술적 지도 사업, 里 당비서의 임무 수행 등 한 해 농사에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농민·책임자들의 조직·사상 생활 까지도 논의된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안주었다”, “누가 怠慢

했다” 등 시시콜콜한 일까지 다 논의가 된다. 분조장, 관리위원장 등 누구 할 것없이 비판 받을 수 있다. 2~3 일간의 총회에서 잘못된 사람들은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집중 비판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 날 군당책임비서와 군당비서들이 참석해 총화를 하면 ‘긴장된 자리’가 끝나게 된다.

북한은 현지 지도라는 용어를 김일성의 정책 지도 활동에 국한해서만 사용해왔다. 김정일에 대해서는 80년대 중반 일시적으로 현지 지도(1984년 2월 28일 평양 방송 보도)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으나, 주로 ‘실무 지도’라는 표현을 써 김일성의 현지 지도와 구별해왔다.

북한이 김정일에 대해 현지 지도라는 표현을 보편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들어서이다. 1990년 1월 7일 「로동신문」에서 김정일에 대해서도 현지 지도라는 표현을 쓴 이후부터 모든 선전 매체에서 김일성과 똑같이 현지 지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992년 2월 13일 북한의 중앙방송은 김정일이 60년대부터 현지 지도를 실시한 이래, 310여 개의 공장·기업소와 200여 개의 협동농장을 비롯해 주요 부문만 약 1,350여 단위를 현지 지도했다고 주장하였다.

김정일은 최근 현지 지도를 더욱 빈번하게 하고 있다. 거의 평양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 재미 교포는 북한 간부들로부터 “김정일이 각지를 현지 지도하며 돌아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김정일은 최근 현지 지도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올해 김정일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50여 회이다. 이 가운데 군 관련 행사가 30 회를 넘고 있다. 이를 두고 북한의 군우위체제가 더욱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지 지도 사실이 전부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군 부대에 갔을 경우 주변의 협동농장이나 공장들도 들렸을텐데, 북한은 이 사실은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실제 현지 지도는 공식 발표되는 건수보다 약 세 배는 더 많았을 것이라고 한다.

북한에서 현지 지도는 ‘수령제정치체제’를 운영하는 독특한 통치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그만큼 북한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따라서 김정일의 공개·비공식 현지 지도에 주목하고 이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북한의 향후 정책 전망을 이해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統**